

# 朝鮮初期

## 上院寺文殊童子像에 대하여

洪 潤 植

### 一、序言

上院寺의 文殊童子像은 世祖의 信佛과 깊은 관련이 있으며 또한 그와 같은 世祖의 信佛을 바탕으로 造成되었다는 傳說과 함께 일찍이 注目の 대상이 되어 왔는데 마침 一九八四年 七月 一九日 文化財管理局 出張으로 江原道平昌郡 珍富面所在 上院寺의 文殊童子像을 調査할 수 있게 되었다.

이번 調査는 文殊童子像에 대한 文化財指定價値를 究明하는데 그 목적이 있었고 따라서 이 佛像이 지니는 美術的價値와 歷史的價値를 아울러 調査하게 되었던 것이다. 그리하여 文殊童子像이 지니는 美術的樣式的 特徵을 살핌과 同時에 이 佛像造成의 背景을 이루고 있는 世祖信佛에 대한 事實을 더욱 分明히 確認하고 그 造成年代를 具體的으로 밝힐 수 있는 資料를 얻고져 文殊童子像의 腹藏을 開封 하였던바 意外로 많은 資料가 發見 되어 學界의 비상한 관심을 끌게 되었다.

한편 上院寺에는 以上과 같은 文殊童子像 以外에 文殊菩薩像一 小童子像三 化佛로서의 小如來像一 小菩薩像一 童眞菩薩像一가 傳하고 있으나 지금까지 이들 諸佛像들에 대해서는 아무런 關心을 가져 오지 않았다. 그런데 이번에 文殊童子像에 대한 관련資料로서 이들 佛像들에 關心을 가지고 注目한 결과 새삼 그 重要性을 認識하게 되었다. 卽 이들 各佛

像들은 文殊童子像과 더불어 華嚴蔓茶羅로서의 性格을 지니고 있음을 살필 수 있어 相互 不可分의 關係에 있음을 알게 되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번 調査에서 특히 文殊童子像이 가장 注目を 끌게 되었음은 世祖信佛說話에 대한 再確認이란 點과 지금까지 發見된 韓國 唯一의 文殊童子像이란 點 그리고 排佛政策下의 社會에서 이룩된 優秀한 文化遺産이란 點 등이다. 그리고 지금까지 韓國佛像에 대한 關心은 如來像 菩薩像 神衆像등에 관한 것이었고 佛心表現의 主要한 장르를 이루는 童子像에 대해서는 無關心 상태에 있었는데 이번 童子像의 發見과 그에 對한 注目は 이런 意味에서도 歷史的 意義를 간과할 수 없게 되는 것이라 하겠다.

以上과 같이 여러 側面에서 注目の 대상이 되는 上院寺 文殊童子像의 實相을 本稿는 밝혀 보고져 하는 바이지만 그러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몇 가지 問題를 究明 하지 않을 수 없게 된다.

- 一) 文殊童子像의 樣式的 特徵
- 二) 文殊童子像造成의 思想的 背景
- 三) 文殊童子像을 포함한 餘他 佛像群의 意味
- 四) 童子像의 佛敎美術史上 位置

이러한 問題의 究明은 이번에 發見된 上院寺 文殊童子像에 대한 實相을 把握 하는데 도움을 줄뿐 아니라 五台山을 中心한 信仰思想의 傳統을 살피는데도 크게 寄與 하게 될 것으로 믿어진다.

### 二、文殊童子像과 其他的 佛像

#### (一) 文殊童子像

規格 總高 九八cm

材料 木彫

年代 成化二年(一四六六) 世祖十二年

이 童子像은 上院寺佛殿에 文殊菩薩像과 함께 二尊樣式으로 奉安된 木

造改金座像이다. 그樣式的인特徵은手印通肩의法衣가슴의瓔珞金色相등은菩薩像의 그것을방불하게하고있으나머리는肉髻나寶髮대선雙髻머리를하고있으며法衣에되를질끈매고있음에서童子像으로서의樣式的特徵을살필수있게된다. 얼굴은양쪽볼을도톰하게하고있으며天眞스러운눈매등에서童子로서의天眞性을잘나타내고있으며앞은자세도結跏趺座가아닌半跏趺座를하고있음에서도童子像으로서의特徵을살필수있을것으로생각된다. 왜냐하면如來像이端正한美를菩薩像이端正한裝飾美를바탕으로하고있는것이라면童子像은天眞性을그美의바탕으로하고있는것이라생각되기 때문이다. 卽天眞스러운얼굴질끈동여맨허리되半跏趺座의자세등이그것이아닌가생각된다.

이童子像이지니는全體의인體感은童子像으로서의天眞性을잘나타내고있는것이라하겠으며天眞性을나타낸도톰한얼굴의모습이全佛身의樣式的特徵으로調和를이루고있다.

佛像樣式的변천에서보면全體의인體感은高麗佛像의樣式을따르고있는것이라하겠으나多少厚肉해진相好에調和를이루게하고있음은朝鮮初期佛像으로서의우수한創作性을보여주고있다.

## (二) 其他의 佛像

文殊童子像 以外の佛像은 調査對象은 아니었으나 이들 諸佛像은 文殊童子像과 아울러 같은 佛壇에 奉安되어 하나의 蔓茶羅를 이루고 있는 것 같아 文殊童子像을 理解하는데 必要한 參考資料로 삼기 위하여 이를 조사하게 되었는데 그 大體의인 內容은 다음과 같다.

### 一、文殊菩薩像

規格 總高 一〇〇cm

材料 木彫

年代 文殊童子像과 同時代로 推定

이 文殊菩薩像은 文殊童子像과 같은 規格의 佛像이며 같은 佛殿에 二

尊樣式으로 奉安 되어 있다. 樣式的 特徵은 法衣는 通肩을 하고 있으며 양손에 蓮峰을 왼쪽으로 받쳐 들고 있다. 三道는 나타내고 있으나 瓔珞은 늘어뜨리지 않고 素朴한 美를 나타내고 있다. 그러나 華麗한 寶冠이 菩薩像으로서의 裝飾美를 잘 나타내고 있는 것이라 하겠다. 朝鮮朝 佛像으로서의 樣式이 옛보이나 아직 退嬰的인 典型的인 朝鮮佛像으로서 자리를 굳히기 前 朝鮮初期佛像의 特徵을 지니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 菩薩像이 文殊菩薩像이라 確信 할 수 있음은 文殊童子像과 二尊樣式을 取하고 있기 때문이며 外普賢 內文殊하였을 때의 文殊菩薩像과도 그 樣式이 一致하기 때문이다 ①.

### 二、小童子像 三軀

이 小童子像 三軀는 文殊童子像과 文殊菩薩像이 奉安 되어 있는 佛壇 아랫쪽에 나란히 奉安 되어 있다. 이 小童子像은 모두 總高가 四〇cm 안 밖이고 身體는 白色 의상은 靑 紅 黃 등의 彩色를 하고 있음이 前記 文殊童子像과 다르다. 그리고 이 같은 樣式의 童子像은 모두가 立像이다.

이 三童子像은 華嚴經에 나오는 普藏童子 兜率天童子 善財童子로 추정되며 ② 三童子中 두 童子는 雙髻머리를 하고 있으나 한 童子는 삭발을 하고 岩壁위에 서 있는 像이다. 이 같은 童子像은 善財童子像이 틀림없는 것이라 하겠으나 다른 두 童子像은 現在로서는 區分하기 어렵다. 삭발한 童子像이 善財童子像으로 確信하게 됨은 觀音菩薩의 脇侍로서 觀音圖에 圖說되는 善財童子像(南巡童子像)과 같은 樣式을 取하고 있기 때문이다 ③.

### 三、小佛像 二軀

規格 總高 二八cm

材料 木彫

以上의 小佛像은 하나는 如來像이며 다른 하나는 菩薩像이다. 奉安場所는 文殊童子像과 文殊菩薩像 뒷면壁에 시설을 하고 奉安하고 있다. 여기 如來像은 文殊菩薩像의 化佛임을 나타내고 菩薩像은 文殊童子像의 化佛임을 나타내고 있다. 樣式的인 特徵은 如來像 菩薩像이 모두 通肩

을 하고 있는 座像이다. 菩薩像은 瓔珞을 늘어뜨리지 않고 蓮峰을 오른 쪽으로 들고 있다. 座台는 彩色木造蓮華座이다.

#### 四、童眞菩薩像

規格 總高 九九cm

材料 木彫

年代 文殊童子像과 同時代로 추정

現在에는 佛壇에 奉安하지 않고 神象壇에 奉安하고 있다. 그 理由는 童眞菩薩은 一名 韋次天神이라 하며 元來 菩薩의 位에 있으면서도 護法神으로서의 權能을 다하고 있기 때문이다.

童眞菩薩像은 佛書로 圖說하는 경우는 많으나 造像作品으로는 唯一한 것이다. 佛書로 童眞菩薩像을 圖說한 作品의 용역에서 보면 神將像에 가까운 相好를 하고 있으나 上院寺 童眞菩薩像은 菩薩의 相好를 나타내고 있음이 特異하다. 卽 寶冠 瓔珞 등이 菩薩像의 造像例를 따르고 있으며 얼굴의 모습도 온화한 보살상의 모습을 따르고 있다. 다만 앞은 자세와 의문에 彩色를 하고 있음이 다를 따름이다. 어떻던 이 童眞菩薩像은 造像例가 唯一한 것으로 注目의 대상이 되는 것이다④.

以上の 文殊童子像과 其他의 佛像群은 一連의 關係에서 理解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생각되며 또한 여기에는 이같은 佛像群이 造成된 思想的인 背景이 있는 것으로 생각되어 이를 다음에 다시 論述해 보기로 하겠다.

### (三) 文殊童子像 腹藏內遺物

#### 一、調查目的

支殊童子像의 由來와 그 造成年代에 대한 確實한 資料를 얻고져 上院寺住持와 관계僧侶 觀覽支署長 立會下에 一九八四年 七月 一九日 午後二時頃 合掌禮拜하며 마음을 가다듬고 敬虔한 마음으로 歷史的인 開封을 하게 되었다. 그러나 開封 直前 얼마전에 이 佛像의 腹藏은 開封된 적이 있음을 確認하고 多少 失望하였으나 開封한 결과 成化年間의 發願文

과 萬歷年間의 發願文이 나와 이 佛像의 造成年代와 重修年代를 살필 수 있었고 한편 一九七二年에 다시 改金佛事時 同腹藏이 開封된 것이 確認되었다.

#### 二、腹藏遺物

##### (一) 發願文(一)

가로 二二cm 세로 三二、五cm의 푸른바탕의 비단에 붉은 글씨로 쓴 願文임이 腹藏願文은 푸른 비단에 붉은 글씨로 써야 한다는 腹藏儀軌를 잘 따르고 있는 셈이다⑤. 願文의 內容은 다음과 같다.

朝鮮國河城尉鄭顯祖懿淑公主李氏伏爲。

主上殿下

王妃殿下

世子邸下 萬歲 萬歲 萬萬歲 亦願己身 智慧之男 敬成 釋迦如來 藥師

如來 阿彌陀佛 文殊菩薩 普賢菩薩 彌勒菩薩 觀音菩薩 地藏菩薩 十

六應眞 天帝權王 伏安于 五臺山 文殊寺伏願。

衆聖各運慈悲 同加攝受

以遂第子區區懇願

成化二年(一四六六) 二月 日誌

여기 發願者 鄭顯祖는 鄭麟趾의 아들로 世祖의 딸 懿淑公主와 一四五五年에 結婚 河南尉로 奉해졌다. 그리하여 이 發願文은 世祖의 딸인 懿淑公主의 夫婦가 世祖의 萬壽無疆을 위하여 發願 한 것이라 할 수 있으며 文殊童子像의 造成緣起가 世祖의 治病과 관련된 傳說 卽 世祖가 부스럼病이 나서 上院寺에 가서 治病기도를 하던중 文殊童子를 만나 靈驗을 얻어 文殊童子像을 造成 하게 되었다는 傳說을 뒷받침 하여 주고 있는 것이라 할 수 있다.

한편 이 願文은 文殊童子像의 造成年代를 確認할 수 있는 좋은 資料가 되어진다. 다만 寺名을 五臺山 文殊寺로 하고 있음에서 의문을 남기게 되나 이는 다음에 다시 問題를 삼아 보기로 하겠다.

##### (二) 發願文(二)

가로 二八 cm 세로 三五 cm 의 푸른 바탕의 비단에 붉은 글씨로 쓴 願文이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皇明萬曆己亥(一五九九)五月日緣化比丘智雲 本寺大衆普明等同發菩提之心重修童子文殊一尊 十六尊聖衆 華嚴會圖 西方會圖 圓覺會圖 彌陀會圖 毗盧會圖 靈山會圖 達磨眞儀 懶翁眞儀 安于福地 以比良緣大誓發願

主上殿下壽萬歲

王妃殿下壽齊年

世子邸下壽千秋 國泰民安 佛日重輝 法界含靈 超生極樂 亦願戒定勳修 三毒水斷 超生極樂親見 彌陀磨頂授記 廣度迷倫 大小隨喜 皆發菩提 普興人天廣緣無窮 證明一學 畫師釋俊 元悟 持殿 戒淳 供養主 學寶 學明跋

이 願文은 華嚴會圖 등과 더불어 萬曆己亥年(一五九九)에 文殊童子像을 改金佛事(重修) 할 때에 넣은 發願文으로 생각 된다. 發願文(一)에서는 文殊童子像의 기록이 없었으나 여기서 文殊童像의 重修할 때의 發願文임을 正確하게 밝혀 놓고 있다.

(三) 改金佛事重修記

淸 渚紙에 『西紀 一九七二年 壬子年 二月 二十七日 佛紀 二九一五年 院主 奉珠 化主 법성주 畫員 朴준주』라는 記錄을 남겨 두고 있다. 이 記錄은 一九七二年에 文殊童子像은 改金하게 되었고 따라서 腹藏이 이때에 다시 開封 되었음을 알 수 있게 한다.

(四) 白色水晶寶瓶 一、

直徑 三、五 cm 정도의 白色水晶珠이며 香木으로 中心部를 뚫어 삼입하여 瓶形을 이루게 하고 있다. 白色水晶瓶은 腹藏儀軌에 따라 中方에 圓鏡 등과 같이 奉安된 것임을 알 수 있다 ⑥.

(五) 無孔水晶珠 一、

直徑 二 cm 餘의 水晶珠이다. 이는 儀軌에 의한 無孔水晶珠 一 爲心水晶珠임을 알 수 있다 ⑦.

(六) 舍利三粒

儀軌에 의하면 舍利七粒 以水晶 瑠璃 等寶代用之 라 하여 佛像腹藏에 넣는 舍利는 七粒으로 하며 水晶이나 유리 등의 寶로 대용한다고 하고 있다. 文殊童子像 腹藏內의 舍利도 이 같은 儀軌를 따른 것으로 생각되나 現在에는 三粒만 傳한다.

(七) 佛書類

다음과 같은 佛書가 腹藏內에 所藏되어 있다. 腹藏儀軌에는 佛書를 넣는다는 규정은 없고 다만 各種 陀羅尼類를 넣도록 되어 있는데 여기서 陀羅尼類以外에 各種佛書가 內藏되어 있다. 그 信仰的 意味는 陀羅尼를 넣는 儀軌에 따른 것으로 생각된다 ⑧.

千手經 一、圓覺經諺解本 一、拈頌 一、佛說阿彌陀經 一、華嚴經 一、諸經合本 二、妙法蓮華經 五、眞言集 一、梵漢文眞言集寫經 一 등이다.

以上에서 梵漢文眞言集寫經에는 「天順七年癸未七月初八日 梵書禪宗禪師乃活興手梵香梵首拜手」란 記錄을 남기고 있어 이 資料도 文殊童子像 造成年代를 알 수 있는 貴重한 資料가 된다.

(八) 比단 上衣二着

一着은 누른비단 上衣이며 여러곳에 陀羅尼를 새기고 있으며 魯氏夫人이란 發願者名을 남겨 놓고 있다. 다른 一着은 白色 비단 上衣이며 陀羅尼는 새기지 않았으며 保有상태가 不良하다.

腹藏儀軌에 따르면 衣服을 넣는 法은 없으며 누른비단 或은 흰비단에 다라니를 새겨 넣도록 되어 있다. 魯氏夫人이 누구인지 現在로서는 밝혀 낼 수 없으나 이 魯氏夫人이 個人的인 功德을 쌓기 爲하여 비단천대 신의복을 넣는 것으로 추정된다.

以外에도 腹藏遺物은 銅製圓筒一個 各種幡 香木藥草(人蔘) 五色絲 등이 있었으나 儀軌에 따른 腹藏內容에는 이르지 못하고 있다.

### 三、上院寺와 文殊信仰

#### (一) 上院寺의 沿革

上院寺에 傳來하는 懸板重創記에 의하면 上院寺는 善德王 一四年(六四五) 慈藏法師가 創建하였고 聖德王四年(七〇五) 重創되었다고 하고 있다. 그 뒤의 事蹟은 알 길이 없고 다만 三國遺事에서 古傳을 引用하여 五臺山에 대하여 말하면서 「眞如院 곧 지금의 上院이라」하고 있음에서 上院寺는 眞如院이라고도 하다가 一然이 生存하였던 高麗時代에는 上院寺로 이미 改稱되고 있었음을 살필 수 있게 될 따름이다<sup>⑨</sup>. 高麗末葉의 上院寺는 극도로 荒廢해 있었으며<sup>⑩</sup> 그러다가 朝鮮初期에 와서 다시 上院寺에 對한 重創은 特히 王室에 의하여 깊은 關心을 보이게 된다는데 注目を 끌게 한다. 卽 排佛의 君主 太宗이 權近에게 命하여 五臺山 上院寺를 重建하게 하였다고 함이 그것이다<sup>⑪</sup> 또한 世祖의 信佛을 바탕으로 王室이 中心이 되어 上院寺重創의 큰 役事를 벌리게 되었음이 그것이다. 卽 五臺山 「上院寺重創記」는 이같은 事實을 다음과 같이 傳하고 있다<sup>⑫</sup>.

上院寺 重創의 役事를 시작할 때는 世祖 一二年(一四六五)이었고 이때의 工事감독은 學悅禪師가 맡았고 王室에서는 慶尙監司에게 命하여 쌀 五百石을 江陵府로 가져 오게 하고 비단 綌疋을 工事費에 充당하게 하였다. 錢을 다시 짓기 시작하자 世祖는 곧 錢鎊을 회부하였고 이에 王室에서는 크게 놀라고 기뻐하면서 五臺山의 佛化를 믿는 마음이 더욱 돈돈하여져 租 五백石을 내어 上院寺의 資糧으로 삼게 하였다.

世祖 一二年(一四六六) 上院寺의 落成式을 가졌는데 東西로 나는 伽藍形式에 각각 上室을 지었다. 남쪽에는 다섯칸의 樓閣을 짓고 梵鐘을安置 하였다. 동쪽에는 羅漢殿 西쪽에는 靑蓮堂을 지었는데 靑蓮堂의 西便으로 齋廚室을 짓고 僧堂과 禪院을 삼았다. 仁粹大妃는 幀畫를 모

실것을 결심하고 다시 租 一五〇石을 下賜하고 信眉스님을 住持로 삼았다. 落成會때 世祖는 大妃 및 王世子를 비롯한 文武百官과 함께 上院寺에 行次 하였다.

睿宗 一一年(一四六九) 先王 世祖의 뜻을 따르기 위하여 上院寺를 世祖 大王의 願利로 삼고 前代에 下賜한 上院寺의 田畝에 대해선 일체 租稅를 免하도록 하였다.

以上에서 보면 上院寺는 世祖의 信佛과 깊은 관련이 있는 寺刹임을 알 수 있고 한편 上院寺의 重創落成會가 世祖 一二年(一四六六)이었다면 文殊童子像 腹藏內의 鄭顯祖 懿淑公主 등의 發願文의 成化 二年(一四六六) 世祖 一二年의 것이므로 文殊童子像은 上院寺重創落成會때 同時에 點眼을 하게 되었던 것이 分明하다. 또한 魯氏夫人 發願의 黃納上衣도 그때에 腹藏內에 넣었던 것이 아닌가 생각 된다. 왜냐하면 上院寺의 重創에는 많은 王室側近人等들이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다. 만약 그렇다고 한다면 魯氏夫人은 王室側近人物로 볼 수 있을 것이다.

世祖代 上院寺重創 당시의 伽藍의 모습은 오늘에 찾아볼 수 없다. 다만 禪院(文殊童子像과 前記한 諸佛像이 奉安됨)과 靈山殿이 오늘에 傳할 따름이다. 그 뒤 世祖以後의 事蹟도 不分明하다.

오늘의 伽藍은 日政期에 再建된 建物들이라 한다. 그러나 용하게도 文殊童子像을 비슷한 諸佛像들은 온갖 受難을 모면하고 오늘에 傳하고 있다.

#### (二) 五臺山과 文殊信仰

五臺山 文殊信仰의 起源은 新羅時代 慈藏律師에서 비롯된다. 卽 三國遺事에 의하면<sup>⑬</sup> 慈藏은 中國 五臺山의 文殊眞身을 親見하고져 貞觀 一〇年(六三六)에 唐나라에 건너 갔고 처음에 中國 太和池가의 돌부처 文殊가 있는 곳에 이르러 경전하게 七日 동안 기도 하였더니 꿈에 大聖이 나타나서 네 귀의 偈를 주었고 그 偈에 대한 공금중을 다시 어느 老僧이 나타나서 풀어 주면서 다시 말하기를 당신 本國의 東北方 명주 경계에

五臺山이 있는데 일만의 文殊가 항상 그곳에 거주하니 당신은 가서 뵈시오 하고 말을 마치자 보이지 않았다. 그 뒤 慈藏法師가 靈跡을 두루 찾아 보고 장차 本國으로 돌아 오려 할 때에 太和池의 龍이 現身하여 齋를 청하고 七日동안 공양하며 말하기를 전날 傷을 傳하던 老僧은 진짜 文殊입니다고 하였다.

以上과 같은 慈藏에 의한 文殊信仰의 體驗은 華嚴思想에 바탕한 것임을 잊어서는 안된다. 왜냐하면 慈藏이 中國五台山 文殊眞身を 만나려 하였다고 함은 六十華嚴의 菩薩住處品 第二七에 東北方的 清涼山에 文殊菩薩이 계시면서 일만의 권속을 거느리고 說法하고 있다고 한 華嚴思想에 根據하고 있는 것이라 믿어지기 때문이다<sup>14)</sup>.

그리고 이와 같은 中國五台山의 華嚴思想에 의한 文殊信仰을 慈藏은 韓國에 移植한 것으로 보인다. 卽 慈藏에 의한 華嚴思想의 傳來는 佛國土思想과 결부 되어 韓國의 五台山을 華嚴曼陀羅化 해나갔다고 보는 것이다<sup>15)</sup>. 卽 三國遺事에 의하면 古傳을 引用하여 五台山을 眞聖(文殊)이 居住한 곳이라고 한 것은 慈藏法師로부터 始作 되었다고, 그 연유를 밝힌 다음 慈藏法師가 中國에서 돌아온 후 貞觀一七年(六四三)에 江原道 五台山에 살다가 文殊를 보았다고 하며 한편 聖德王대의 寶川과 孝明의 두兄弟가 五台山으로 들어가 세속을 떠나기로 결심 하자 두형제가 山속 에 이르렀을 때 홀연히 靑蓮이 됨으로 寶川庵 등의 절을 짓고 부지런히 修業하던 중 東西南北 中的 五峰을 瞻禮하려 올라가 보았더니 各峯마다 觀音 등의 眞身이 나타나고 中峰에는 毘盧遮那를 首位로 하며 一萬 文殊가 나타나 있었다고 하고 있는데<sup>16)</sup> 이는 慈藏에 의하여 受容된 華嚴思想을 寶川 孝明의 두兄弟에 의하여 새로 展開된 事實을 일러주고 있는 것이라 하겠다. 그런데 여기 注目을 끄는 것은 이들 두兄弟가 五台山 五臺의 「五萬眞身을 낳날이 침례 하였는데 매일 새벽이면 文殊大聖이 眞如院 지금의 上院에 이르러 三六종의 形相으로 변하여 그 몸을 나타내었다는 대목이다」

생각컨대 寶川 孝明의 두兄弟가 五台山 五臺를 두루 돌아 五萬眞身을

침례 하였다고 함은 華嚴思想을 두루 섭렵 하였음을 말하는 것이라 하겠고 이렇게 五萬眞身을 침례하니 매일 새벽에 文殊大聖이 眞如院(上院寺)에 이르러 三六종의 形相으로 나타나므로 이들 두兄弟는 매양 洞中的 물을 길어다가 차를 다려 공양하고 저녁이면 자기 암자에서 道를 닦았다고 함은 華嚴思想의 體得은 文殊의 智慧를 빌려 可能한 것임을 일러 주는 것이라 하겠고<sup>17)</sup> 한편 文殊菩薩이 眞如院에 이르러 三六종의 형상으로 變化 한다고 함은 眞如院에서는 華嚴思想에 입각한 文殊信仰이 盛行 하고 있었음을 일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sup>18)</sup>. 이와 같은 新羅時代의 眞如院이 오늘날 上院寺의 前身이라고 한다면 오늘에 傳하는 文殊童子像이 지니는 信仰思想的 背景은 오랜 傳統을 갖는 것이라 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眞如院은 三國遺事의 기록에 따르면<sup>19)</sup> 神龍六年(七〇五) 聖德王卽位四年 乙巳, 三月初四일에 改創 되었다고 한다. 이때에 大王이 親히 文武百官을 거느리고 산에 이르러 殿堂을 세우고 아울러 文殊大聖의 泥像을 만들어 堂안에 모시고 知識 天下 등 五명으로 華嚴經을 轉寫하게 하고 이어 華嚴社를 조직 하며 오랫동안 비용을 대었다고 하고 있는데 여기서도 眞如院은 華嚴道場이었고 한편 華嚴思想에 의한 文殊信仰이 盛行 하였음이 더욱 分明해진다.

그런데 이때의 華嚴思想은 特히 密敎的 要素를 強調하고 있었다는데 注目하지 않으면 안된다. 卽 五台山信仰自體가 華嚴曼陀羅이고 오늘의 上院寺에 傳하는 文殊童子像을 포함한 餘他的 佛像群 등이 華嚴曼陀羅로서의 性格을 지니고 있다고 생각 됨이 그것이다. 三國遺事에 傳하는 寶川의 信仰體験을 通해 傳해지는 華嚴密敎의 內容은 그를 더욱 分明히 해주고 있다.

卽 寶川이 隨求陀羅尼經을 誦하는 것으로서 매일의 과업으로 삼으며 窟神이 現身하여 말하기를 처음으로 隨求陀羅尼의 眞詮을 들었다고 함은 寶川의 密敎的 修行을 말하여 주는 것이며<sup>20)</sup> 한편 神聖窟에 들어가 五〇년 동안 修眞 하였는데 切利天의 神이 三時로 法을 듣고 淨居天의 무

리가 차를 다려 바치고 어떤 때는 文殊가 寶川の 이마에 물을 쏟고 成道記 別을 주기도 하였다고 하고 있는데 이도 寶川の 密教修行에 따른 體驗의 內容을 적고 있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리고 또한 寶天이 돌아가려 할 때에 後日山中에서 行할 국가를 도올 行事를 기록해 두었다는 內容이 五台山을 曼陀羅化하여 그 修行 實踐의 方法까지 명시하고 있음도 密敎의 인 發想이다. 그런데 이와 같은 密敎가 華嚴密敎라고 생각하게 됨을 寶天이 五台山을 曼陀羅化함에 있어 中台를 毗盧遮那를 수반으로 하여 三六化形을 그려 봉안하고 華嚴社라 하게 되었음이 그를 일러주는 것이라 하겠으며 한편 寶川이 살던 寶川庵을 개창하여 華嚴寺라 하고 圓像 毗盧遮那三尊과 大藏經을 奉安하고 華嚴神衆을 영하게 하고 華嚴會를 열게 하였다는 것들은 寶川이 行한 密敎의 修行이 大日經 등의 密敎經典에 바탕을 둔 修行이 아니라 華嚴經에 바탕을 둔 密敎의 修行이었음을 일러주는 셈이 된다<sup>21)</sup>. 따라서 五台山信仰에서 文殊信仰이 強調 되어짐도 以上과 같은 新羅以來的 華嚴思想에 의한 文殊信仰임을 잊어서는 안 된다.

### 三、文殊童子像 造成의 背景과 佛教美術史上的 位置

#### (一) 文殊信仰의 特質

文殊童子像이 造成 되어진 背景을 한마디로 말하면 文殊信仰이 強調된 結果라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왜 文殊信仰이 強調 되어졌을까 하였을 때 한마디로 대답하기 곤란 하다. 왜냐하면 여기에는 歷史的 社會的 展開를 생각 하지 않을 수 없게 되기 때문이다.

그러면 이제 이 문제를 풀기 위하여 文殊信仰이 지니는 特質이 어떤 것인가를 살펴보기로 하자.

慈藏은 求法次 中國五台山에 이르렀을 때 文殊眞身을 親見 하였다고 한다. 처음에 文殊石像 앞에서 七일간 기도하였더니 文殊大聖이 나타나서

偈를 주었다고 한다 偈文의 뜻을 알지 못하였는데 老僧이 이를 풀어 주었다. 뒤에 알고 보니 이 老僧도 文殊菩薩이었다. 결국 여기서 보면 文殊는 우리들에게 智慧를 밝혀 주는 案內의 機能을 담당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따라서 慈藏이 文殊眞身을 만나려 하였다고 함은 智慧를 求하고자 한데 目的이 있었음을 쉽게 理解 할 수 있게 된다. 그런데 이와 같은 文殊의 機能은 華嚴經에 의하여 더욱 分明해진다. 卽 華嚴經 普光法堂會에서는 文殊가 偈로써 佛德을 찬탄 하고 如來光明覺品에서는 文殊를 通하여 佛光明을 알리고 淨行品에서는 文殊가 信에 의한 行을 四句 偈에 의하여 說하게 된다.

즉 여기서 보면 文殊를 通하여 우리는 華嚴經에 대한 信과 解, 證에 接할 수 있게 된다. 말하자면 우리를 깨우쳐 주는 案內者로서의 機能을 文殊는 다하고 있는 셈이다. 그런데 文殊는 智慧光明을 밝혀주는 案內의 機能을 充分히 다하기 위하여 여러 몸으로 變身하게 된다는 事實을 또한 잊을 수 없게 된다. 慈藏이 求法次 中國에 갔을 때의 文殊는 文殊大聖이 直接 나타나기도 하였으나 그가 傳한 偈를 慈藏이 알지 못하자 老僧으로 化하여 偈文의 內容을 풀이해 주기도 하였다. 聖德王이 「眞如院 卽 오늘날의 上院寺를 開創하고 文殊大聖의 泥像을 만들어, 당안에 奉安하고 華嚴經을 轉寫하게 하고 華嚴社를 조직 하였다」고 하는데<sup>22)</sup> 여기서도 文殊를 通하여 華嚴經의 世界에 이르게 하고 있는 信行動機를 우리는 살필 수 있게 된다. 한편 慈藏이 中國에서 돌아오려 할 적에 우리나라 江原道の 五台山에 一萬의 文殊가 그곳에 항상 거주한다고 하고 그곳에 가서 만나 보라고 老僧으로 변신한 文殊가 일러 주었다고 함도<sup>23)</sup> 文殊를 通한 華嚴思想의 理解를 일러준 것이라 할 수 있다. 한편 五台山에 一萬의 文殊가 나타난다고 함은 佛法에 이르기 위해선 그만큼 많은 文殊의 案內를 받아야 하였음을 일러주는 셈이 된다. 그리고 文殊大聖이 眞如院에 이르러서는 三六종의 형상으로 變化한다고 함은<sup>24)</sup> 당시 社會에서 智慧를 傳해 주기 위해선 三六종의 方便을 쓰지 않을 수 없을 정도로 傳統文化의 變이 두터웠음을 일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sup>25)</sup>.

우리는變化身하면 무엇보다도 觀世音菩薩을 먼저 생각한다. 卽千手千眼觀音이니 一 一面觀音이니 등 餘他 많은 身의 觀音이 그것이라 하겠는데 이와 같은 變化身의 觀音에서 우리는 觀音의 無限한 慈悲를 생각할 수 있다면 文殊의 變化身에선 佛智의 無限한 光明을 생각할 수 있게 되는 것이라 하겠다. 따라서 우리가 文殊信仰을 하게 된다고 함은 무한한 佛智의 世界에 들고져 하는 바람에 起因하는 것이라 하여도 무방하다. 文殊童子像의 造成의 背景說話를 이루고 있는 世祖가 文殊童子를 만났다고 함은 以上과 같은 世祖의 文殊信仰에 의한 것이 틀림 없을 것이다.

文殊信仰의 特質을 정리해 보면 華嚴思想의 體系위에서 비로소 그 理解가 可能하리라 생각되나 이는 다음機會로 미루고 우선 그 結論적인 特質을 以上에서 살핀 文殊信仰의 內容에서 살펴 보면 文殊菩薩은 宗教的 實踐에 있어서의 智慧를 나타내는 것이라 할 수 있으며 한편 修行門에 있어 智慧의 德을 나타내는 것이라 할 수 있다.

## (二) 文殊童子像造成的 信仰的背景

上院寺의 文殊童子像을 造成하게 된 因像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傳說이 傳한다.

世祖는 王位에 오른 以後 病에 중기가 생기는 怪疾에 걸렸다. 醫藥에서는 效험을 얻지 못하고 靈山 五台山 文殊道場에서 祈禱하며 佛力을 빌리고져 하였다. 그리하여 世祖가 上院寺로 가던중 溪谷에 만나 侍從들을 멀리하고 혼자 그곳에서 木욕을 하였다. 마침 그곳에는 뜻밖에 童子 하나가 숲속에서 놀고 있었다. 世祖는 그 童子에게 자기들을 밀어 달라고 부탁하였다. 木욕을 마친 世祖는 童子에게 부탁하기를 임금의 玉體를 씻었다고 하지 말라고 하자 童子가 말하기를 大王께서 어디 가시면 文殊童子를 만났다고 하지 말라고 말을 마치자 홀연히 童子는 자취를 감추고 말았다. 王은 놀라서 주위를 살폈다. 그때 王은 자기 몸의 중기가 씻은 듯이 나은 것을 보고 놀라고 기뻐하였다. 이에 王은 畫에게 命하여 그 童子像을 造成하게 하고 以上과

같은 信仰體験談을 널리 流布 하도록 하였다. 오늘날에 傳하는 上院寺의 文殊童子像은 이렇게 하여 造成 되어졌다고 하며 文殊童子가 世祖의 몸을 씻어주는 場面을 그린 壁畫가 海印寺에 傳한다. 아마 世祖의 以上과 같은 文童信仰의 體験談은 널리 流布 되어 있었던 것으로 생각 된다.

以上의 傳說은 허무맹랑하게 생각 되기도 하지만 新羅以後의 五臺山 文殊信仰의 傳統이 朝鮮朝 世祖의 信佛을 契機로 文化化 하는 과정을 일러주고 있는 것이 틀림없다. 世祖의 上院寺에서의 信佛을 알려주는 五臺山 上院寺 勸善文(보물 一〇四호)이 月精寺에 傳하는데 이 文書는 王家에서 寺刹에 보낸 重要文書일뿐 아니라 排佛의 社會에서 世祖와 信眉 등 高僧과의 關係를 傳해주는 귀중한 史料가 되기도 한다. 이 勸善文에 의하면 당시 社會의 朝廷과 僧團에 비추어진 五臺山과 上院寺는 다음과 같은 것이었다.

『江陵五臺 天下名山 文殊住處 窺異現顯 上院寺 尤其勝也 某等 竭衣鉢之貯 重創於是寺』 卽江陵의 五臺山은 天下名山으로서 文殊가 사는 곳이라 窺異함이 잘 나타난다. 上院寺는 그중에도 더욱 뛰어난 곳이라 우리 衣鉢 다내어 이절을 다시 지으려 한다고 發願하니 兩殿이 이를 듣고 슴을 내려 上院寺의 重創을 크게 도왔다는 것이다.

여기서 보면 世祖가 上院寺를 가는데중 文殊童子를 만났다고 함은 上院寺가 名山으로 알려져 文殊가 사는 곳이며 窺異함이 잘 나타나는데 그중에도 上院寺가 뛰어나다고 하는 在來의 信仰觀念이 世祖의 信佛을 만나 나타나게 되었던 것이라 하겠다.

文殊菩薩이란 위에서도 여러번 言及 하였지만 결국 智를 표방하는 보살이다. 그러나 五臺山 文殊信仰에서 나타나는 文殊菩薩은 本來의 智即 理性 그自體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觀照의 智或은 修生의 智라 할 수 있는 人間의 認識上에 나타난 智慧를 표방하고 있다는 事實을 있어서 는 안된다. 그러기에 文殊는 어디에나 있는 것이 아니라 五臺山이라고 하는 名山을 빌려 居住하고 人間의 必要에 따라 여러 몸으로 變身하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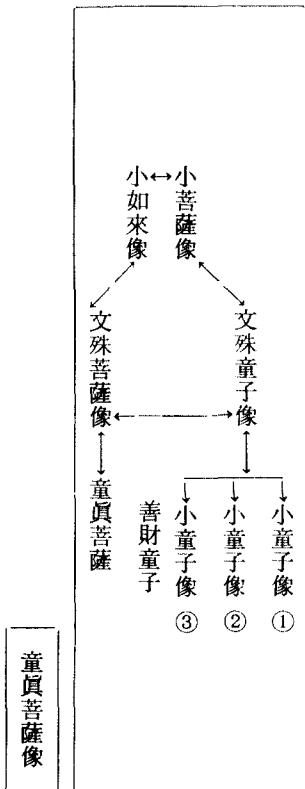
나타나기도 하는 것이다. 말하자면 華嚴密敎의 信仰體系上的 文殊라는 것이다. 文殊童子像 造成의 直接 동기가 되었다고 하는 文殊童子의 出現도 人間의 認識을 바탕으로 한 智慧의 표방이었음은 두말할 여지가 없다. 이와같이 文殊童子像이 人間認識에 나타난 智慧의 표방으로서의 文殊로 造成 되어졌다면 여기에는 文殊信仰에 대한 歷史性과 社會性 등이 배제 될수 없는 것이다. 卽 新羅以來의 五臺山 文殊信仰의 傳統이 世祖의 信佛을 계기로 文殊童子像을 造成 하게 된다는 것이다. 오늘에 傳하는 上院寺의 文殊童子像이 五臺山 華嚴密敎의 傳統을 바탕으로 造成 되어 진것임은 前述한 文殊童子像을 포함한 上院寺 所傳의 餘他的 佛像群과 그 配置에 의하여서도 알수 있게 된다.

### (三) 文殊童子像과 諸佛像群과의 關係

이문제를 풀기 위해선 먼저 文殊菩薩과 文殊童子와의 關係가 어떤 것인가를 살펴피지 않으면 안된다. 文殊는 文殊大士 文殊菩薩 文殊童子 등으로 表現 되어지고 있다. 여기 文殊大士는 文殊菩薩을 지칭하는 것이나 文殊童子는 文殊菩薩의 變化身이나 元來는 같은 것이다. 卽 人間의 認識이 童子像을 통하여 文殊菩薩을 受容 하게 되는 것이다. 華嚴經에서는 「東北方의 清涼山에 文殊菩薩이 常住 하면서 一萬의 권속을 거느리고 항상 說法하고 있다.」고 하고 있는데 「文殊舍利法寶藏陀羅尼經」에서는 ② 「내가 減度한 以後 瞻部洲의 東北方에 나라가 있는데 大振國이라 이름한다. 그 國土중에 五頂이라는 山이 있고 文殊舍利童子가 遊行 居住하며 모든 衆生을 위하여 說法 할 것이다」하고 있다. 그런데 여기서도 華嚴經에서 말하는 文殊菩薩이나 文殊舍利法寶藏陀羅尼經에서 말하고 있는 文殊舍利童子는 결국 智慧의 표방자로서의 文殊로서 같은 것임을 일러 주고 있다. 그런데 上院寺에는 文殊童子像 以外에 三童子像이 傳하여 또한 注目を 끌게 한다. 그런가 하면 한편 華嚴經에서는 文殊童子像 以外에도 童子像을 많이 표방하고 있지만 그중에도 華嚴經上的 童子中 가장 有名한 三童子에 注目할 必要가 있다. 卽 그하나는 普莊嚴童子로서

舍那品에 나오는 童子이며 그들은 地獄童子 或은 兜率天童子라 하는 것으로 이는 小相品에 나오는 童子이다. 그것은 善財童子로서 入法界品의 主人公이다. 여기 第一童子는 信을 人格化한 것이라 하겠고 第二童子는 解의 人格化 第三童子는 證의 人格化라 할수 있다. 이를 좀더 具體的으로 說明을 加해보면 普莊嚴童子는 佛의 無量自在의 功德을 보고 그 因緣에 의하여 三昧를 얻게 되었다는 것인데 여기서서 見佛과 聞見이 重要視 되어진다(信)한편 地獄童子 或은 兜率天童子는 兜率天 上童王如來의 出現에 의하여 지금까지 地獄의 밑바닥에 있었으나 一躍 하늘까지 昇天하는 童子인데 이는 解의 體驗者임을 나타낸다. 善財童子는 證의 人格化라 하였으나 入法界品에서 보면 佛心을 地上의 一步 一步에 나타내고 있는 佛心의 體驗者라 할수 있다. 그런데 上院寺의 三童子像은 이 華嚴經上的 三童子 像이름없을 것이라는데 關心을 끌게 하는 것이나 다. 그러면 이제 文殊童子像과 이들 三童子像과의 關係는 어떤 것일까 文殊童子像이 文殊菩薩의 智를 人間認識上에 살린 一次的인 展開라 한다면 三童子는 二次的인 展開라 할수 있을 것이다. 卽 여기 前者를 童子一般을 표방한 것이라 하면 後者는 童子의 個性을 표방한 것이라 할수 있다. 그런데 上院寺에는 文殊童子像을 단순한 童子像으로 奉安하지 않고 華嚴經上的 文殊童子의 位置를 秩序지은 華嚴曼陀羅로 配列하고 있다는

佛像配置圖(華嚴曼陀羅)



에 注目을 끌게 한다. 即 前述한 上院寺의 諸佛像群이 그를 일러주고 있다. 이를 圖解해 보면 다음과 같다.

#### (四) 童子像의 造像學上的 位置

지금까지 우리나라 佛像에 대한 研究는 如來像 菩薩像 그리고 天王等의 神衆像에만 重點을 두어 왔다. 간혹 羅漢像과 高僧像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던바도 있으나 童子像에 注目한바는 없었던 것으로 안다.

如來像과 菩薩의 相好가 成就相 淸淨相 圓滿相 慈悲相等을 바탕으로 하고 있으며 菩薩像은 여기에 장식美와 個性美 등을 아울러 지니는 것이라 할 수 있고 四天王等의 神衆像은 淸淨相과 勇猛相을 바탕으로 하고 있으며 羅漢像은 修行相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런데 童子像은 以上の 諸佛像의 어느 類型에도 屬하지 않는 獨特한 장르를 이루고 있다는데 注目할 必要가 있다. 한편 많은 經典에서는 童子를 通하여 佛心을 表現하고 있다는 事實을 아울러 생각하면 더욱 童子像에 대한 關心이 깊어진다.

童子에게는 아무런 속박이 없다. 人間으로서의 아무런 하자도 없다. 그저 自由天地에 뛰어 들어 있을 따름이다.

佛은 언제나 自由의 主人公이다. 이같은 佛心을 表現하기 위하여 特히 華嚴經에서는 많은 童子를 등장시키고 있는 것이 틀림 없다. 上院寺의 文殊童子像을 通하여 우리는 天真한 童心으로 돌아 갈 수 있고 한편 거기서 自由世界를 發見 한데 대한 喜悅을 느낄 수 있게 된다. 世祖가 文殊童子를 만나게 되었다고 함은 많은 政治社會의 浮沈을 겪고 난 뒤 지난날을 참회하는 가운데 童心으로 되돌아가 自由의 世界에서 安住하려는 간절한 소망이 그와 같은 信仰體驗을 얻을 수 있었을 것이라 確信할 수 있게 된다. 童心으로 돌아 간다고 함은 自然으로 돌아감을 意味하기도 한다고 생각된다. 왜냐하면 文殊童子가 淸涼山 即 靈山으로서의 五臺山에 居住 한다고 함은 그를 일러 주고 있는 것이라 생각 되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五臺山信仰과 文殊信仰은 서로 짝하고 있는 것이라 믿어

진다.

오늘날의 韓國寺院에는 많은 小童子像이 佛畫로 或은 造像으로 傳해지고 있다. 佛畫로 傳하는 童子像은 雪山童子와 十牛圖上的 童子가有名하다. 그런데 이들 童子像은 自由世界에서 아무런 속박 없이 佛法을 傳해 주는 求道者像으로서 우리들에게 接해지고 있는 것이다. 自由世界의 主人公인 如來像도 아니며 그 志願者로서의 菩薩像도 아닌 求道者로서의 童子像에서 佛心의 自由를 느낄 수 있다면 童子像에 대한 새로운 관심이 要望 되는 바라 하겠다.

### 五 結 語

上院寺의 文殊童子像은 世祖의 信佛을 계기로 造成된 朝鮮初期의 優秀한 造像의 한 예로 오늘에 傳한다. 그러나 이 佛像이 비록 朝鮮初期에 造成 되어졌다고 하나 新羅以來의 五臺山 文殊信仰의 信仰的 傳統이 世祖와 王室의 文殊信仰의 契機를 만나 造成 되어졌다는 데서 傳統的 意味를 더욱 크게 지니는 것이라 할 수 있다.

한편 이번 上院寺 文殊童子像에 대한 새로운 注目에 의하여 佛敎美術史上 童子像이라고 하는 새로운 장르를 개척 할 수 있었음이 하나의 소특이라 할 수 있고 또한 文殊童子像을 포함한 諸佛像群이 三國遺事上에 傳해지고 있는 華嚴曼陀羅로서의 性格을 지니고 있다는 事實을 밝혀 낼 수 있었다. 即 이같은 曼陀羅的인 佛像의 造成과 配列을 통하여 우리는 潛在的 或은 未開展의 認識上 修行上의 能力을 살필 수 있게 된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와 같은 思想은 新羅佛國土思想과도 깊은 관련이 있음을 잊어서는 안 된다.



사진 1. 文殊童子像



사진 2. 文殊菩薩像



사진 3. 小童子像(1)



사진 4. 小童子像(2)



사진 5. 善財童子像



사진 6. 小如來像



사진 8. 童眞菩薩像



사진 7. 小菩薩像



도면 1. 童眞菩薩像



사진 9. 文殊童子世祖洗身場面



도면 2. 上院寺 佛像郡 華嚴曼陀羅

〔註〕

- ① 文殊童子像이 어떤菩薩像과 二尊樣式을 取하고 있다면 그菩薩像은 文殊菩薩이어야 한다. 왜냐하면 文殊童子는 文殊菩薩의 變化身이기 때문이다.
- ② 新譯 八〇卷 華嚴經
- ③ 華嚴經 入法界品の 善財童子는 南方에 遊行하면서 善知識을 提示한다. 그 리하여 南巡童子라고도 한다.
- ④ 여기 童眞이란 華嚴經 十住品の 童眞住를 말하며 身, 口 意의 三業이 童子와 같이 純眞함을 말한다.
- ⑤ 『造像經』 「諸佛菩薩腹藏儀式」篇
- ⑥ 前揭書
- ⑦ 前揭書
- ⑧ 前揭書
- ⑨ 東文選 李穡撰 「五臺上院寺僧堂記」
- ⑩ 「歷文殊大聖到眞如院 今上院」 三國遺事 臺山五萬眞身條
- ⑪ 新東國輿地勝覽 卷四四 江陵大都護府 佛宇 上院寺
- ⑫ 李能和 朝鮮佛教通史 上 pp. 423~426.
- ⑬ 三國遺事 五萬眞身條
- ⑭ 舊華嚴經 卷二九 菩薩住處品 大正藏經 卷九 五九〇 p.
- ⑮ 金煥泰 「三國遺事に 보이는 華嚴思想」 韓國華嚴思想研究 東國大學校 出版部
- ⑯ 三國遺事 臺山五萬眞身條
- ⑰ 文殊菩薩은 宗教實踐에 있어 智慧를 나타내고 修行門에 있어 智慧의 德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華嚴經의 敎說도 文殊와의 問答形式을 取하고 있는 것이 그것이다.
- ⑱ 文殊의 變身은 文殊를 受容하려는 人間의 認識上의 智慧가 多樣하게 나타남을 意味하기 때문이다. 卽 文殊眞身の 現象界에서의 受容을 나타내는 것이기 때문이다.
- ⑲ 三國遺事 臺山五萬眞身條
- ⑳ 前揭書
- ㉑ 大日經에 의한 密敎는 華嚴思想의 새로운 展開에 의한 것이라 하겠으나 그 以前 華嚴經의 密敎思想의 構造를 말한다.
- ㉒ 三國遺事 臺山五萬眞身條
- ㉓ 前揭書
- ㉔ 前揭書
- ㉕ 文殊의 變身은 文殊의 現象界에서의 受容을 意味하는 것이라 생각 되기 때 문이다.
- ㉖ 大正藏經 卷二〇 p. 791c